

▶ 매일 INDEX



3면

신소득작물 제배 농부에게 필요한 정책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음 9월 2일) 제3107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습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경제영토 해외 확장 '구슬땀'

미국 방문 김관영 도지사
 기업·상공인 면담 잇따라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

한남체인과 협약 체결
 LA한인상의와 전북생산품
 수출확대·행사 유치 협약

미국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짧은 일정에도 전북경제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숨 가쁜 일정 소화의 첫 결실은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1천만 달러 수출계약 업무협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도지사와 LA 한남체인 그룹 하기환 회장은 25일(현지시간)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산 농수산식품 취급 물량 확대와 신규 수출농식품 빌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남체인은 1988년 LA에 문을 연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미국 캘리포니아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연구개발·유통 등을 모두 갖춘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전북농수산식품 수출길을 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왼쪽)는 25일(현지시간) 미국내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LA 한남체인 그룹 하기환 회장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은 "전라북도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미국 고장인 전북산 농수산식품을 미국 교민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판매해 수출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돋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또 LA한인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그는 LA한인상공회의소 장진혁 회장 등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유치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과 LA한인상공회의소는 미국에 대한 전북 생산품의 수출 및 유통 확대, 이를 위한 수출선별과 정보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의 전북 투자를 앞선하고 국제 행사의 전북 유치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LA한인상공회의소는 LA에 소재하는 가장 큰 한인단체 중 하나로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유통업체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북

도는 전북 농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대미 수출을 증대시키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라북도-LA동부한인회 협력 발전 협약서 체결', 오렌지 카운티 호남향우회, 남가주 호남향우회 간담회, 한인 축제 카페레이드 참여 등 여러 활동을 펼쳤으며, 카페레이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미셀스틸 박 미국 연방 하원의원, 데이비드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만나 농생명 비오너 산업 선도지역인 전라북도 홍보에 나서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내년 전북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58원

도·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등 1674명에 적용

내년도 전북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58원으로 결정됐다. 전북도 및 도출자·출연기관장이 고용한 노동자(기간제·공무직·민간위탁 업무 수행자) 1,674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0.1% 수준이다.

2023년 전북도 생활임금은 지난 22일에 열린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기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라 죠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선사인들의 염원, 디지털 기술로'

내달 고창 고인돌유적지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개막식은 내달 1일… 3D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채

"3천년전 거석을 세웠던 인류의 염원이 첨단 미디어아트로 되살아난다"

가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이 밤이 아름다운 곳으로 거듭난다.

고창군과 함께 전라북도,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한달여간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 주제는 해가 지면 우리의 염원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진다—황혼의 기적을 테마로,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 전체가 거대한 빛의 '스크린'이 된다.

고창 고인돌박물관 앞을 들판에 지키고 있는 '예산리고인돌(90톤)'에는 시간을 돌리는 기적을 표현해 빛의 수호신과의 만남이 연출된다. 고인돌리를 건너 유적지까지 가는 길은 은하수와 반딧불 조명으로 반짝반짝 빛난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수백개의 고인돌이 펼쳐져 있는 언덕 수백분의 돌을 나르며 부족의 영광과 하늘의 응례를 바랐던 선사인들의 염원이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난다.

프로젝션 매크로와 레이저, 음향효과를 활용해 바다과 숲을 최대한 활용해 신비롭고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인돌박물관 1층에선 미디어아트 특별전시(기적의 빛, 희망을 밝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람객이 함께한 체험콘텐츠 '라이브스케치-고인돌판타지'야도

운영된다.
 어린이들은 고래와 사슴, 호랑이 토끼를 종이에 색연필로 색칠해 스캔하면 동물들이 벽면 고인돌 애니메이션에 등장한다.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터치하게 하면 고인돌유적지 한가운데로 돌아가 내가 미처 동물들과 뛰노는 기분이 들게 하는 3D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개막식은 10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기울밤 오픈닝 공연과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축하공연이 이어져 열기가 고조되며, 인근에 흥보영산관 포토존이 준비돼 있다.

미디어아트 기간 중에는 2022 고창 고인돌유적 세계유산미디어아트 설문조사 참여 및 현장 등록 이벤트로 커피 쿠폰과 기타 기념품들을 제공한다.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전 세계 고인돌은 약 6만기에 달하는 데 그중 3만여 기가 한반도에 있다고 한다. 국내의 고인돌 중 전라북도에 분포된 고인돌은 2,600여 기 이상이다. 그 중 63% 이상인 1,680여 기의 고인돌이 고창 산허리를 장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인돌 유적의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함으로써 청동시대 한반도의 거석문화를 흥보하고 턱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기술발 많은 분들이 고인돌유적을 찾아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